

일제 강점기 뉴욕 한인언론의 특성과 역할: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박용규*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

일제 강점기에 뉴욕에서 한인에 의해 5개의 신문 및 잡지가 발행되었다. 이 매체들은 크게 발행 주체나 성격으로 볼 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유학생에 의해 영문으로 발행되었고 주로 유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과 미국인에게 독립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던 *The Korean Student Bulletin*과 *The Free Korea*를 들 수 있다. 둘째는 이승만이 이끌었던 동지회가 발행하여 이승만의 활동을 후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던 <삼일신보>와 <북미시보>를 들 수 있다. 셋째로 유학생과 교포가 함께 참여해 발행했고 주로 교포의 미국정착과 한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잡지 <산업>을 들 수 있다. ‘민족운동에 대한 기여’와 ‘미국사회에 대한 적응’이라는 두 가지 매체의 역할 중 유학생 발행 영문매체나 동지회계 국문신문이 전자의 역할에 치중했다면, <산업>은 후자의 역할에 더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 뉴욕의 한인언론은 전체적으로 민족정체성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모국과의 연대 속에 활동을 하려고 하며 강한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을 보여주었다.

핵심어 : <한인학생회보>, <자유한국>, <삼일신보>, <북미시보>, <산업>

* ygpark@sangji.ac.kr

1. 연구의 내용과 시각

1) 연구의 목적과 내용

일제 강점기 동안 해외에서도 민족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많은 한인¹⁾은 조국을 떠나 생활하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민족운동에 참여하거나 후원하는 활동을 했다. 해외에 머무르며 활동하던 인물들은 한인을 조직하고 민족운동을 고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매체를 발행했다. 이런 신문이나 잡지는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민족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일제 강점기의 미국 여러 지역에서도 한인이 다양한 매체를 발행했다. 한인이 가장 먼저 들어갔던 하와이는 물론, 본토의 서부지역이나 동부지역에서도 한인 매체가 발행되었다.

그러나 미주 한인언론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부진한 편이다. 미주 한인언론의 역사가 언론사 연구자는 물론 해외한인을 연구하는 역사학자에게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해창(1971), 차배근(1980), 최기영(1998), 김점숙(2003) 등이 미주 한인언론의 역사를 폭넓게 고찰했고 최기영(1989), 김복수(1994), 김희곤(1998) 등이 한말이나 일제 강점기에 미국에서 발행된 특정 신문이나 잡지를 연구했다. 샌프란시스코의 <신한민보>나 하와이의 <국민보> 등이 영인본으로 나오면서 이를 활용해 구체적 주제를 다룬 연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미주 한인언론의 역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미국의 한인언론 중에서도 동부지역인 뉴욕에서 발행된 매체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록 미국의 동부지역에 한인이 거주하기 시작한 시기가 하와이나 서부지역보다 늦은 편이지만 동부에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 C. 나 중심도시인 뉴욕시²⁾가 위치했기 때문에 이 지역의 한인활동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이승만과 서재필이 동부지역에 머무르며 활동했던 점도 한인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특히, 뉴욕에는 컬럼비아대학이나 뉴욕대학에 많은 유학생이 있었고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한인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 내 다른 지역의 한인과의 교류도 뉴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그동안 뉴욕 한인언론

1) 미국과 같은 외국에서 사는 한국인을 흔히 ‘한인’이라고 부른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 대신 한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2) 본 논문에서의 ‘뉴욕’은 ‘뉴욕주’가 아니라 ‘뉴욕시’를 가리킨다.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이 주로 활동했던 곳은 뉴욕시 중에서도 맨해튼 지역이었다. 다만, ‘뉴욕’이라는 단어가 흔히 ‘뉴욕시’를 가리키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그냥 ‘뉴욕’이라고 표기할 것이다.

의 역사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자료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에 뉴욕에 상주한 한인은 100여 명에 불과했지만 이 시기에 이미 뉴욕에서 유학생이나 독립운동단체가 발행한 신문이나 잡지는 5종이나 되었다. 비록 대부분의 매체의 발행기간이 길지 않았고 유학생이 발행한 매체는 영어로 발행되어 일반 독자의 접근이 어려웠지만 이런 신문이나 잡지는 독립운동에 기여했고 미국 내 한인이 이민생활을 하는 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뉴욕 한인언론의 역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제 강점기 뉴욕의 한인언론이 한국의 독립운동에는 어떤 기여를 했고 한인이 정착하여 생활하는 데는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특히,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과 뉴욕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며 한인언론의 특성과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일제 강점기 뉴욕의 한인언론이 민족운동사적으로나 이민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밝힐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미주 한인언론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 이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해외 한인언론의 현황을 다룰 때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며 연구하도록 하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매체는 일제 강점기에 뉴욕에서 발행된 5개의 신문 및 잡지이다. 이런 언론은 크게 발행주체나 매체의 성격으로 볼 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유학생에 의해 영문으로 발행되었고 주로 유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과 미국인에게 독립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던 *The Korean Student Bulletin*과 *The Free Korea*를 들 수 있다. 둘째는 이승만이 이끌었던 동지회가 발행하여 이승만의 활동을 후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던 <삼일신보>와 <북미시보>를 들 수 있다. 셋째로 유학생과 교포가 함께 참여해 발행했고 주로 교포의 미국정착과 한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잡지 <산업>을 들 수 있다.

*The Korean Student Bulletin*은 1922년부터 1940년까지 1년에 3회 내지 5회 정도 4면에서 8면으로 발행되었는데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간행한 영인본으로 잡지 전체를 볼 수 있다. *The Free Korea*는 1942년부터 1944년까지 격월간 4면으로 발행되었는데 국회도서관에서 마이크로필름으로 전체를 볼 수 있다. <삼일신보>는 1928년부터 1930년까지 2년 동안 주간 8면으로 발행되었고 현재 접근이 가능한 자료는 단 3호에 불과하다.³⁾ <북미

3) 1929년 1월 4일자는 국회도서관, 1929년 5월 24일자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마이크로필름으로 볼 수 있다. 1930년 2월 28일자 1면 원본 사진과 나머지 면의 주요 내용은 이해창(1971)의 <한국신문사연구>에서 볼 수 있다. 최기영(1998)은 이승만대통령기념사업회가 있는 이화장에 <삼일신보> 한 호가 소장되어 있다고 했는데(111쪽) 정작 몇 일자 신문이 소장되어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시보)는 1943년 1월에 뉴욕에서 창간되어 8개월 동안 월간 8면으로 발행되다가 LA로 발행지를 옮겨갔는데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영인본에는 뉴욕에서 발행되던 시절의 신문으로 단 1호만 실려 있을 뿐이다. <산업>은 1930년에 창간되어 1932년의 2호를 끝으로 사라진 잡지로서 현재 1호와 2호를 각각 원본과 영인본으로 볼 수 있다.⁴⁾

본 연구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뉴욕에서 어떤 매체가 누구에 의해 무슨 목적으로 발행되었고 내용의 특성은 무엇이었으며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발행주체와 발행목적, 그리고 운영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신문이나 잡지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회고록, 당시 이들 사이에 주고받았던 편지를 모아놓은 자료집, 당시 발행되었던 신문인 <신한민보>·<동아일보>·<조선일보>, 해외 한인언론을 언급하고 있는 총독부 문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런 자료를 통해 신문 원본이 얼마 남지 않은 일부 신문에 대한 연구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5개 매체를 모두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각 매체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내용에서 드러난 특징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2) 소수민족 언론의 개념과 역할

해외의 한인언론은 매체 발행지역에서는 에스닉 미디어(ethnic media)이라고 할 수 있다. 에스닉 미디어란 “세계 여러 나라의 이민자, 민족적·인종적·언어적 소수자, 원주민 등이 자신을 위해 스스로 발행하는 미디어”를 포함하는 것으로 폭넓게 정의된다(Matsaganis, Katz, & Ball-Rokeach, 2010, p. 10). 따라서 에스닉 미디어뿐만 아니라 ‘이민자 언론’(immigrant press) 또는 ‘소수자 매체’(minority media)라고 부르기도 한다. 에스닉 미디어는 주로 민족, 종교, 언어 등에 의해 나누어지는 특정한 수용자를 상대로 하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Rhodes, 2010, p. 3).

미국에서는 19세기 말부터 많은 이민자신문이 발행되었고 이에 따라 1920년대에 이미 ‘이민자신문’이 이민자의 ‘미국화’(Americanization)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한 연구가 나왔다. 파크(Park, 1922)는 이민자신문이 민족주의적 특성 때문에 미국사회로의 동화(assimilation)에 지장을 주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

4) <산업> 1호는 독립기념관에 원본이 있고 2호는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와 도산학회가 2005년에 간행한 <미국국민회자료집> 제 22권(385-476쪽)에 실려 있다. 본 논문에서 <산업> 2호를 인용할 때는 이 자료집의 쪽수를 표기할 것이다. 2호가 안창호계인 국민회 자료집에 실려 있는 것은 2호를 안창호계인 흥사단에서 활동했던 한승인이 주도했던 사실과 관련이 있다.

다. 리긴스(Riggins, 1992)는 에스닉 미디어의 역할을 이중적(dual role)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소수민족 언론이 ‘민족정체성의 보존’을 위한 역할과 ‘미국사회로의 동화’를 위한 역할을 모두 한다고 주장했다. 두에즈(Deuez, 2006)는 에스닉 미디어의 역할을 ‘응집과 부식’(cohesion and corrosion)이라고 표현하여 소수민족 내부의 단결을 위한 역할과 미국사회로의 적응을 위한 역할을 모두 한다고 주장했다.

에스닉 미디어의 이중적 역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본 연구도 있다. 비스와나스와 아로라(Viswanath & Arora, 2000)는 에스닉 미디어의 역할을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문화적 전승, 지역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나타내려는 지역 후원자(local booster), 외부의 위협에 맞서는 방패막이(sentinel), 지역공동체와 모국의 정보제공, 미국사회로의 동화의 촉진(promotion assimilation) 등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장원호(1991)는 이민자신문이 ‘미국동화에 역행’한다는 주장과 함께 ‘미국생활에 길잡이’가 된다는 주장도 있다고 하며 이민자신문이 모국소식·교포소식·미국소식의 비중을 어떻게 두고, 영어와 모국어 중 어떤 언어로 발행하느냐에 따라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모국이 어려운 현실에 있을 경우 이민자신문이 모국상황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Lai, 1987, pp. 30-34).

한선(2006)은 “민족정체성의 유지와 현지사회에 대한 동화라는 매스 미디어의 상반된 역할은 디아스포라적 민족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양면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713쪽)고 주장했다. 한인언론이 현지사회에 대한 동화를 염두에 두면서도 민족정체성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며 모국과의 관계에 더 중점을 두고 활동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디아스포라’(diaspora)라는 개념의 공통적 속성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비자발적이고 강제적인 요인으로 모국을 떠난 것,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것, 모국과의 유대를 지속하려고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윤인진, 2003, 101-105쪽). 해외한인의 디아스포라적 성격은 이주 및 정착의 시기나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는데 일제 강점기 뉴욕 한인의 경우 디아스포라적 특성이 상당히 강했고 이런 특성이 한인언론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미국 내 소수민족 매체는 대체로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둘 중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활동하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미국 내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이 언제, 어떤 계기로 미국에 왔느냐에 따라 이들이 발행하는 매체의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제 강점기에 뉴욕에서 한인이 발행한 신문이나 잡지가 ‘민족정체성의 보존’과 ‘미국사회로의 동화’라는 에스닉 미디어의 두 가지 역할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모국이 식민지로 전락해 있는 특수한 현실에서 뉴욕의 한인언론이 에스닉 미디어로서 어떤 특성을 보였는가를 분석하려고 한다.

2. 일제 강점기 뉴욕의 한인사회

1920년대에 뉴욕에 거주한 한인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하와이 사탕수수밭 노동자로 이민 왔다가 캘리포니아를 거쳐 뉴욕까지 온 노동자 그룹, 그다음 이 이들 가운데 성공하여 비교적 여유 있게 살던 자영업자, 셋째는 뉴욕으로 유학을 온 유학생집단이였다(뉴욕한인회, 1985, 24쪽). 이들을 다시 크게 교포집단과 유학생집단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두 집단 모두 1921년에 창립된 뉴욕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적지 않은 입장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일제 강점기 뉴욕의 한인인구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는 우선 미 연방정부 인구통계국 조사자료가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표 1>에 나와 있는 대로 1930년 뉴욕의 한인인구는 86명이였다. 이 자료는 조사시점인 1930년에 뉴욕에 머물던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삼일신보>가 발간되던 1928년 뉴욕의 한인인구가 70여 명이라는 기록도 있는 것을 보면(京本高秘 제 638호, 1930, 2, 20, 438쪽) 1930년에 86명이 있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정확한 숫자라고 볼 수 있다.

1930년 초에 뉴욕에 온 한승인(1980)은 당시에 “뉴욕에 사는 한국교포는 약 150명 내외였다고 기억한다. 학생이 약 30명, 실업가 약 30명, 노동자 약 30명, 그 외에 남녀노소 교포가 여기저기 흩어져있었다”(131쪽)고 회고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뒤의 회고라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런 회고를 통해 1930년대 이후 잠시 머무르는 사람을 포함해 뉴욕의 한인인구가 다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1. 미국 본토 주요 도시의 한인인구 변화

	1910	1920	1930	1940	1950
시카고	-	27	64	39	48
뉴욕	4	18	86	-	116
로스앤젤레스	14	84	345	482	330
샌프란시스코	39	77	143	81	90
시애틀	1	37	15	6	23

출처: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1995). <칠십년사>. 서울: 고려인쇄공사, 39쪽에서 인용. 원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일제 강점기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의 수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도 대립과 갈등이 있었다. 특히, 이승만계의 동지회, 교민단과 안창호계의 홍사단, 국민회는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갈등을 겪었다. 대체로 이승만계의 중심지는 하와이였고 안창호계의 중심지는 서부지역이었다. 동부지역인 뉴욕은 이승만계의 동지회와 안창호계의 홍사단이 서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던 곳으로 1920년대 말부터 양 세력의 대립이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 홍사단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교민단에도 가입했던 김도연은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내가 미국으로 유학하기 전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미주에서는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하는 동지회와 안창호 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홍사단계 등 양파가 서로 대립,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항일투쟁을 계속하려면 서로 힘을 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포의 세력이 이와 같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입장을 뒷받침하는 힘이 미약하다는 말을 들은 바 있었다. 그러던 차에 뉴욕에 와서 직접 양파의 심각한 대립상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 그때 양파의 대립, 반목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는 것을 예로 든다면 3·1절 기념행사를 거행함에 있어서도 교민단과 국민회에서 각각 장소를 달리하여 별도로 행사를 준비하는 정도였다. (김도연, 1967, 110-112쪽)

당시 동지회에는 대체로 자영업자나 노동자 같은 교포가 주류를 형성했고 홍사단에는 상대적으로 유학생이 다수를 차지했다(조종무, 1987, 216쪽). 자신의 권위에 무조건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이승만의 스타일과 청년과도 성의를 다해 '대화'를 나누는 안창호의 스타일이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김도연, 1967, 111쪽). 동지회와 홍사단의 대립은 당시 뉴욕 한인모임의 주된 공간이었던 뉴욕 한인교회에서도 벌어져 교회에서도 "자기와 계파가 다르면 말끝마다 홍사단놈들, 동지회놈들 하다 보니 그러한 거친 입버릇이 걸핏하면 싸움이 도화선이 되곤 했다"고 한다(뉴욕한인교회 역사편찬위원회, 1992, 181-182쪽).

뉴욕에 본부를 둔 북미 YMCA 외국학생친선위원회 한인학생부가 1922년에 설치되면 서부터 뉴욕 한인유학생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1924년 당시 미국 전체 한인유학생 중 46% 정도가 평안도 출신이었고 이 중 다수가 홍사단계였기 때문에 뉴욕 한인유학생의 주류도 홍사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장규식, 2006, 155-164쪽). 홍사단 소속으로 1932년 당시 컬럼비아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체류하던 한승인은 같은 홍사단원이었던 김병연에게 보낸 편지에서 "학생회는 홍사단우들이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는 기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https://search.i815.or.kr/OrgData/OrgList.jsp?tid=he&id=1-H01209-000>).

반면 1924년에 뉴욕 한인 거류민단이 설립되면서 뉴욕에서 교포를 중심으로 하는 조

표 2. 일제 강점기 뉴욕의 동지회와 흥사단 소속 주요인물

동지회계	흥사단계
김도연, 김세선, 김양수, 김영섭, 김현구, 김활란, 남궁엽, 송세인, 신성구, 안정수, 안택주, 윤병구, 윤치영, 윤희섭, 이기봉, 이봉수, 이순용, 이용직, 이원철, 이진일, 이철원, 이춘호, 임병직, 정덕수, 정태은, 조정환, 최순주, 허 정, 홍득수	곽림대, 김계봉, 김마리아, 김애경, 김영육, 나기호, 송기주, 신윤국, 염광섭, 오정수, 오천석, 임 초, 장리욱, 정성봉, 정인과, 정일형, 조병욱, 차상달, 최경식, 최윤호, 한세광, 한승인, 허 연, 허 장, 허진업, 황창하

주: 관련 서적과 논문 및 당시 발행된 신문, 잡지를 종합해 정리.

적이 새로 결성되었다. 이러한 거류민단은 이승만의 구미위원부 재정후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라는 점에서 이승만계 단체였다고 할 수 있다(조종무, 1987, 217쪽). 1925년 8월에 윤치영이 프린스턴대학으로 진학하면서 뉴욕의 한인을 결집하기 시작하여 1927년 12월 26일 첫 모임을 가진 뒤 이듬해인 1928년 1월 2일에 뉴욕 동지회를 공식 설립하기에 이르렀다(홍선표, 2009, 429쪽). 일제 강점기 뉴욕의 동지회와 흥사단에 소속되었던 주요 인물들은 <표 2>와 같다.

동지회계 인물 중에 송세인·신성구·안정수·이기봉·이봉수·이진일·허정·홍득수 등 다수가 자영업을 하는 교포였던 반면 흥사단계 인물 중에서는 김영육과 임초 정도만이 자영업을 하는 교포였다. 양측 모두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유학생이었고 그중에서도 다수가 뉴욕시의 컬럼비아대학이나 뉴욕대학에 재학했다. 이렇듯 일제 강점기 뉴욕에 거주하던 한인 중에 동지회나 흥사단 소속이 다수였지만 어느 한쪽으로 분류하기 어렵거나 중간에 소속을 바꾼 사람도 있었다.⁵⁾ 당시 <표 2>에 나타난 동지회계와 흥사단계 인물 중 다수가 일제 강점기 뉴욕의 한인언론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1929년 말 국내에서 발생한 광주학생운동 소식을 계기로 국내 학생항일운동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미주한인들은 1930년 초부터 각지에서 한인공동회를 결성했다. 1930년 1월 26일 뉴욕의 한인유학생이 교포와 함께 뉴욕한인공동회를 발기했다. 임원은 위원장 허정, 서기 고재완, 회계 황창하, 선전위원 오천석·윤병구·이기봉·이동재·이상봉, 수전위원 박리금·홍태호·정경희·오장호·김일선 등이었다. 미국 여러 곳에서 조직된 한인공동회는 뉴욕에 중앙위원회라는 본부를 두었고 임시위원장으로 허정을, 임시서기로 오천석을 각각 선임했다(홍선표, 2012, 91-95쪽). 허정이 동지회소속이고 오천석이 흥사단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930년대 초 두 단체의 연합노력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5) 김도연은 일본 유학 중인 1921년 3월에 흥사단에 가입했지만 미국 유학 후인 1927년쯤에는 이승만계의 '뉴욕시 대한인교민단'에 참여했고 1928년경에는 동지회에도 가입했다. 미국에서의 활동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김도연을 동지회로 분류했다(오대륙, 2011, 179-183쪽).

3. 일제 강점기 뉴욕의 유학생 발행 영문잡지

1) 뉴욕 최초 유학생 발행 영문잡지 *The Korean Student Bulletin*

뉴욕에서 한국인에 의해 가장 먼저 발행된 매체는 유학생이 1922년 12월, 영문으로 발한 *The Korean Student Bulletin* (이하 <한인학생회보>로 표기, 인용 시 KSB로 약칭)이다. 초기 이 회보는 뉴욕에 있는 북미 YMCA 산하 외국학생친선위원회(The Committee on Friendly Relations Among Foreign Students)에서 월간으로 발행했고 이 위원회 산하 한인학생부가 편집을 담당했다. 한인유학생 대표가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한인학생을 잘 교육시켜 기독교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외국학생친선위원회도 그 필요성을 인정해 산하에 한인학생부를 두게 되면서 <한인학생회보>도 발간할 수 있었던 것이다(KSB, 1922, 12, p. 1).

한인학생부 간사는 박준섭(1922. 8), 염광섭(1923. 11)⁶⁾, 이병두(1924. 9), 황창하(1927. 9), 오천석(1929. 3), 이철원(1931. 10), 허진업(1935. 1) 등 전·현직 북미한인유학생총회(The Korean Student Federation of North America, 이하 유학생총회로 약칭)의 임원이 맡았다(장규식, 2006, 161쪽). 이 중에서도 비교적 오랫동안 간사를 맡았던 황창하, 오천석, 허진업 등이 모두 흥사단체였던 반면 동지회계는 이철원 정도밖에 없었던 점에서 <한인학생회보>는 주로 안창호계인 흥사단 소속 학생이 편집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⁷⁾ 다만 <한인학생회보>의 편집위원회에는 다양한 학생이 참여했기 때문에 흥사단체 학생이 논조를 전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창간사에서는 <한인학생회보>가 미국에 있는 한인학생의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두는 교제와 교육을 위해 봉사하고 미국인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깊고 넓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KSB, 1922, 12, p. 1). 또한 <한인학생회보>의 편집에 참여했

6) 장규식(2008)은 1923년 11월에 염광섭이 북미한인유학생총회장으로서 YMCA 외국학생친선위원회 한인학생부 총무를 겸하면서 그 사무소까지 뉴욕에서 시카고로 옮겼다고 주장했다(137쪽). 그러나 외국학생친선위원회 한인학생부 사무실이 옮겨갔다고 해서 신문발행지까지 바뀌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뉴욕한인교회 역사편찬위원회는 최근 <한인학생회보>, <삼일신보>, <자유한국> 등은 물론 시카고에 본부를 둔 북미한인유학생총회의 기관지 <우라키>까지 뉴욕한인교회에서 편집되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2015, 12, 28). <우라키>는 시카고에 본부를 둔 북미한인유학생총회 기관지였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7) 북미한인유학생총회 역대 임원 53명 중에 이승만의 동지회계는 9명으로 17%를, 안창호의 흥사단계는 20명으로 38%를 차지했을 정도로 흥사단체가 다수를 차지했다(장규식, 2008, 140쪽).

던 최순주도 “영문학생보는 우리 학생소식을 보도하고 또 우리의 의견과 포부를 외국 친구에게 소개하는 유일의 기관”이라고 규정했다(〈신한민보〉, 1928, 3, 29, 1면). 즉, 영문으로 발행된 〈한인학생회보〉는 한인학생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는 중요한 장이자 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는 중요한 수단으로 출발했던 것이다.

〈한인학생회보〉의 내용은 “각종 기고문, 각종 행사소식, 사설, 학생총회 소식, 주요 인물 동정, 귀국 및 도미 유학생의 동정, 국내외 소식, 서평, 기획기사, 한국문화 및 한국문학의 소개, 학생논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홍선표, 2000, 7쪽). 1928년까지는 유학생들의 동정과 기독교 복음에 관한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기고자 중에는 “언더우드·아펜젤러·헬버트·모우리·스코필드 등 주로 한국에 선교 및 교육활동을 담당했던 친한(親韓) 기독교 인사들”과 “에드먼드 브루너⁸⁾·주안 그릭스비·칼 루퍼스·프레드릭 스타 등 한국을 연구하는 교수 및 연구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홍선표, 2000, 7쪽). 이러한 미국인의 한국에 관한 글은 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회보의 내용 중에는 미국 내 일반 교포에 관한 기사가 거의 없었고 소개되었던 뉴욕에 관한 기사도 별로 없었다. 뉴욕에 관한 기사는 대부분이 뉴욕한인교회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편집진 가운데 뉴욕한인교회 교인이 다수 포함되었고 〈한인학생회보〉가 기독교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었다(뉴욕한인교회역사편찬위원회, 1992, 130쪽). 다만 〈한인학생회보〉가 미국 각지에서 유학생회를 하는 한인유학생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은 분명하다.⁹⁾

1928년 10월에 외국학생선선위원회와 북미한인유학생총회가 공동으로 발간하게 되면서 〈한인학생회보〉는 사실상 유학생총회의 기관지가 되었는데(홍선표, 2000, 6쪽), 이때부터 논조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그 상징적 기사가 바로 1928년 12월호에 실린 ‘한국의 현황’(The Present Korean Situation)이었다. 이 글은 한국의 현실을 나름대로 분석하고는 “모든 나라는 흥망성쇠를 경험해왔다. 한국을 더욱 강하고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모든 한국인의 의무다”라고 끝맺었다(KSB, 1928, 12, p. 3). 이전까지와는 달리 민족운동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이다. 1928년 10월 이후에는 미주 10개 지역과 한국에 통신원을 두고 현지소식을 전달받게 되었다(홍선표, 2000, 8쪽).

8) 컬럼비아대학 교수였던 존 듀이와 에드먼드 브루너 교수는 한국인학생의 지도교수로 〈한인학생회보〉의 자문위원을 맡았고 한국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오진석, 2011, 77-79쪽).

9) 최기영(1998)은 “미주에서 영문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잡지들”(99쪽)을 제외하고 살펴볼 것이라고 했지만 영문으로 발행한 잡지가 반드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한인학생회보〉가 민족운동에 본격적 관심을 보인 최초의 기사로는 1930년 2월호에 실린 ‘한국인이 독립을 위해 다시 일어서다’(Korean Rise Again For Independence)를 들 수 있다. 이 기사는 광주학생운동의 발발원인과 전개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일제의 탄압 등을 3면에 걸쳐 자세히 다루었다(KSB, 1930, 2, pp. 1-3). 1930년 1월 26일에 뉴욕에서 국내의 항일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뉴욕한인공동회가 만들어져 지원했던 것이(홍선표, 2012, 91-94쪽), 〈한인학생회보〉의 항일 논조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런 기사는 미국인에게 한국의 독립운동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한인학생회보〉는 다양한 민족운동가들의 활동을 다루었는데 대표적 예로 이승만에 관한 기사(KSB, 1931, 12, p. 8; KSB, 1932, 3, p. 1)와 안창호에 관한 기사(KSB, 1935, 3-4, p. 1; KSB, 1938, 2-3, p. 1)를 들 수 있다. 안창호에 관한 기사가 비교적 더 자주 실렸고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지만 전반적으로는 가능한 한 이승만과 안창호를 균형 있게 다루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었다. 민족운동에 대한 한인유학생의 인식은 ‘죽음이나 저항 이냐’(Death or Revolt)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기사에 잘 나타난다.

한국은 지금 30년 가까이 일본의 속박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소수의 정의로운 사람의 피로 쓰인 이 시대의 역사는 또한 대다수의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수치로 오염되고 있다. 세계 역사 어디를 찾아봐도 그토록 수준 높은 문화적 전통을 이룩한 민족이 나라의 주권을 상실했음에도 무기력과 무관심에 빠져 있는 경우는 우리밖에 없을 것이다. ... 일본이 한국을 강점한 이래 이룩한 발전은 한때 찬란했던 한국문화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다. 죽음이 찾아오면 시체는 버려져 땅 위에 굴러다닐 것이고 지난날의 민족적 영광이 덧없음을 쓸쓸하게 증언하게 될 것이다. 한국이 진정으로 죽지 않으려면 일어서야 한다. 과거 역사를 통해 과감하게 일어섰던 것처럼 철저한 신념으로 일어서야만 한다. 그러나 어느 쪽을 택하든 거기에는 오직 죽음이 아니면 저항, 양자택일이 있을 뿐이다. (KSB, 1933, 3, p. 2)

이러한 글이 실릴 수 있었던 것은 〈한인학생회보〉가 미국에서 발행되어 검열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필자가 나중에 귀국했을 때 처할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익명으로 쓰였다. 위와 같은 글은 유학생이 느끼고 있는 조국의 식민지 현실에 대한 좌절감과 분노를 잘 표현했다.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난 이후 〈한인학생회보〉에는 중일전쟁의 전개과정이나 중일전쟁의 영향을 다룬 기사가 자주 게재되었다. 또한 민족운동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는 기사도 자주 실렸는데, 1939년 3월에는 3·1운동 당시의 독립선언문이 실렸고(KSB, 1939, 3-4, p. 8), 1940년 3월에는 3·1운동의 역사적 의

이를 다룬 기사가 게재되었다(KSB, 1940, 3-4, p. 2).

〈한인학생회보〉는 초기에 외국학생친선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재정적으로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 이 시기에 유학생총회도 1925년에 244.47달러, 1926년에 331.37달러를 회보발행에 사용했다. 유학생총회의 1년 전체 예산이 1925년에 635달러, 1926년에 550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회보발간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 예산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KSB, 1926, 1, p. 7; KSB, 1927, 1, p. 5). 1928년부터 〈한인학생회보〉가 사실상 기관지가 되면서 유학생총회는 더 큰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었는데 최순주는 ‘학생영문보를 계속합시다’라는 글에서 “금년부터는 학생보를 국제청년 예산절약으로 인하여 우리의 손으로 하여 가야만 하게 되었다. … 우리의 수가 불과 이삼백 명이고 형편이 어렵다고 하여도 일 년에 이삼 불씩은 더 내어놓지 못할 리가 있나?”라고 하며 한인유학생들의 지원을 호소했다(〈신한민보〉, 1928, 3, 29, 1면).

이후에도 재정적 어려움이 계속되었는지 〈한인학생회보〉 영업부 노재명이 “여러 학우들은 연례로 내시던 1불 이상의 의무금을 주시고 유지 제씨께서는 다소의 의연금을 주신다면 우리의 적지 않은 큰 사업을 원만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신한민보〉, 1932, 1, 21, 3면). 〈한인학생회보〉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1931년부터 여행사 등의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KSB, 1931, 3, p. 8). 1932년 말경에 1,300부가 미국과 한국에서 배포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한인학생회보〉가 널리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KSB, 1932, 12, p. 3). 1938년 3-4월호부터 〈한인학생회보〉는 재미한인기독교학생회(The Korean Student Christian Association in the U. S. A.)의 주관으로 바뀌었지만, 편집장은 1935년부터 맡았던 허진업이 계속 자리를 지켰다(홍선표, 2000, 6-7쪽). 〈한인학생회보〉는 재정난 속에 1936년 이후 발행 회수가 연 2-3회로 줄어들다가 1940년경에는 폐간되고 말았다.¹⁰⁾

10) 영인본에는 1940년 3-4월호까지 있다. 그러나 다른 자료에는 회보가 1941년까지 발행되었고 편집장인 “허진업의 죽음과 더불어 막을 내”렸다고 나와 있다(뉴욕한인교회역사편찬위원회, 1992, 230쪽).

2) 정치적 성격을 강화한 영문잡지 *The Free Korea*

〈한인학생회보〉가 폐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42년 4월에 *The Free Korea*(이하 〈자유한국〉으로 표기)가 창간되었다. 〈자유한국〉은 창간호에 북미한인유학생총회에 의해 발행된다고 밝혔는데 이것을 통해 〈자유한국〉이 〈한인학생회보〉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유한국〉의 발행지는 뉴저지라고 나와 있었는데 실제로는 뉴욕에서 발행되었다. 발행지가 뉴저지로 된 것은 발행인인 정기원이 뉴저지의 프린스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대학의 도서관 직원으로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기원이 뉴욕한인교회 교인이었고 편집인인 김준성은 2호 발행 때부터 뉴욕한인교회 담임목사를 맡았으며 영업을 담당했던 강한모는 당시 뉴욕대학에 재학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뉴욕에서 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뉴욕한인교회역사편찬위원회, 1992, 231-232쪽). 〈자유한국〉은 창간호 1면에 이승만이 쓴 ‘국내외의 모든 한국인에게 보내는 선언문’을 게재하여 발행 목적을 명확히 하였다(〈자유한국〉, 1942, 4, p. 1). 과거의 〈한인학생회보〉보다 〈자유한국〉은 훨씬 더 정치적이었다(뉴욕한인교회역사편찬위원회, 1992, 230쪽).

창간호에서는 “우리는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전체주의의 지배하에 쇠사슬에 묶인 노예가 되고 말 것인지 아닌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하여 독립운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자유한국〉, 1942, 4, p. 2). 이것은 비단 재미한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2차 대전에 참전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도 했다. 3호에 실린 ‘헐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청원’(Petition to Mr. Hull)이라는 기사는 한인 간에 분열이 심하고 임시정부에 대한 인정은 시기상조이며 독립을 위한 한인의 공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헐 국무장관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담았다(〈자유한국〉, 1942, 8, p. 2). 이렇듯 〈자유한국〉은 한국문제를 미국여론에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역할도 했다.

한편 〈자유한국〉은 한국이 충분히 독립할 자격을 갖추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선 한국 독립군의 활동상을 알리는 기사를 통해 한국이 독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자유한국〉, 1943, 1, p. 8; 〈자유한국〉, 1943, 9, p. 8). 또한 이순신, 솔거, 세종대왕, 최치원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여 한국이 우수한 군사적, 문화적 전통을 지니고 있음도 강조했다(〈자유한국〉, 1943, 7, p. 1, p. 8; 〈자유한국〉, 1943, 9, p. 1, p. 6). 또한 〈자유한국〉은 1944년 4월의 기고에서 “이제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인이든 한국인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든 모두 나서서 한국의 자유를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할 때가 왔다”고 하며 독립운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자유한국〉, 1944, 4, p. 6). 이런 주장을

마지막으로 <자유한국>은 1944년 4월에 폐간되고 말았다.

<자유한국>은 북미한인유학생총회에서 발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지만 유학생총회의 재정 지원을 받지는 않은 듯하고 내용 면에서도 유학생소식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 또한 <자유한국>은 특정 세력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재미한인의 단결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승만 계열이 주도했고 이승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자유한국>은 발행인 정기원의 자금과 일부 한인 및 선교사의 도움으로 발행되었다. <자유한국>은 미국의 정치인과 관료, 외국 대사, 언론기관, 종교지도자, 한인지도자 등을 포함해 4천 부나 발송했다. 이렇게 폭넓게 배포했던 <자유한국>은 창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정난에 봉착했다. 발행에 필요한 1,200달러의 경비를 마련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1942년 말에는 미국 각지의 한인들로부터 지원받은 액수를 지면에 밝히고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다(<자유한국>, 1942, 10, p. 6). 그러나 얼마 뒤에는 '긴급통보'라는 제목하에 어려운 사정을 독자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재정난을 견디지 못해 불과 2년 만에 폐간되고 말았다(<자유한국>, 1943, 7, p. 4).

4. 이승만 계열의 동지회 발행 신문

1) 초당파를 표방했던 동지회 주도의 <삼일신보>

뉴욕에서 한국인이 발행한 최초의 국문신문은 1928년 6월 29일에 주간으로 창간된 <삼일신보>(*The Korean Nationalist Weekly*)였다. <삼일신보>는 원래 1927년부터 창간이 추진되었으나 인력, 자금 등의 문제로 1928년 3월 1일에 발간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그러나 장덕수가 국문활자를 국내에 있는 <동아일보>의 송진우에게 요청했는데 이를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다시 연기했다가 드디어 1928년 6월 29일에 창간할 수 있었다(오대륙, 2011, 183-184쪽). 신문 제호를 <삼일신보>라고 한 것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 시킨다는 의미에서였다.

<삼일신보>에 참여했던 모든 인물은 동지회와 흥사단으로 대립되어 있던 뉴욕 한인의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이 신문을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가장 적극적으로 신문창간에 나섰고 나중에 사장을 맡았던 허정(1979)은 “당시 하와이에는 이승만 박사계의 <국민보>가 있었고¹¹⁾ 샌프란시스코에는 흥사단계의 <신한민보>가 있었으나 이 신문들은 각파의 기관

지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초당파적인 공정한 언론을 펼 신문이 참으로 필요했다”(67쪽)고 주장했다. 흥사단 소속이었다가 1927년 말에 동지회에 가입했던 김도연(1967)도¹²⁾ “우리가 발행하는 <삼일신보>만은 어디까지나 전체 거류민을 상대로 하여 지도·계몽함으로써 교포의 힘을 모아 독립운동에 이바지하기 위한 큰 의무감을 지니고 발간”(114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민호도 두 세력의 단결을 통해 민족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삼일신보>를 발행했다고 주장했다(<경향신문>, 1972, 9, 23, 5면).

동지회와 흥사단의 대립에 대한 염려 때문에 <삼일신보>가 두 파의 단결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대가 높았다. 이런 기대를 받고 있던 <삼일신보>를 이승만은 별로 미더워하지 않았던 듯하다. 1928년 1월 14일에 이승만에게 부친 편지에서 윤치영은 “세사(世事)가 매양 난측이라 염려도 있었사오나 각하게 상달컨대 조금도 달리 아시지 마시옵고 각하게 이롭게든 찬성하여 주시옵고 특히 이에 전력(專力)은 허정씨이오니 주필은 장(덕수)와 김양수가 되오니 부디 호감 갖게 하여 주시옵고 만일 하실 수 있사오면 한 백 불이라도 하송(下送) 하시와 신문 사업에 보태라고 하시오면 이것이 얼마나 더 기운이 나고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며 지원을 요청했다(유영익·송병기·이명래·오영섭, 2009b, 138-139쪽).

흥사단체 기관지인 <신한민보>조차 <삼일신보>의 창간 소식을 듣고서 “필자는 본보가 재미 전반 동포의 환영을 못 받는 것이 마음에 쓰라리니만큼 <국민보>가 하와이 전반 동포의 환영을 받지 못함을 깊이 느낀다. 그런 고로 <삼일신보> 창간 체씨에게 기대하는 바는 아래와 같다. 귀보에서는 본보나 <국민보>처럼 어느 단체나 일부 사회의 후원을 의뢰하지 말으시고 모쪼록 독립생활로써 기위 발포하신 ‘불편부당’의 본 뜻대로 곳곳이 유지하여서 우리 재미한인 사회의 도화선이 되며 우리민족 대동단결의 선봉이 되소서”라고 주장했다(<신한민보>, 1928, 2, 16, 4면). 이와 같은 기대 때문인지 1928년 2월의 창간 발기인에는 비교적 다양한 세력들이 포함되었는데 그 전체 명단은 아래와 같다.

김경, 김도연, 김양수, 김마리아, 김세선, 김승제, 김일선, 김종철, 김태우, 김필영, 김현구, 김홍기, 김원용, 남궁염, 임영신, 나기호, 양일태, 유기원, 유재익, 임아영.

11) 1915년부터 1930년대 초까지 <국민보>는 “이승만 지지세력에 의하여 운영”되었다(최기영, 1998, 106쪽).

12) 김도연, 장덕수, 윤홍섭은 동지회에 가입하며 이름을 밝히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나중에 윤치영이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이들의 동지회 가입 사실이 밝혀졌다. 이렇듯 동지회 가입 사실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귀국 이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었다(오대륙, 2011, 182-183쪽).

임효원, 이명섭, 이동제, 이봉수, 이상진, 이선행, 이용직, 이진일, 이정근, 이철원, 이훈구, 이완수, 이원준, 마주홍, 민병개, 박익삼, 박인덕, 박종만, 방화중, 박영섭, 서민호, 송복신, 송세인, 주필만, 신성구, 안택주, 위덕진, 오천석, 윤병희, 윤성규, 윤성순, 윤치영, 윤홍섭, 장덕수, 장석영, 장세운, 정성봉, 정태은, 조종문, 최용진, 최윤관, 한문익, 한보용, 한상익, 한치진, 허봉, 허정, 홍득수, 홍익범, 권태용, 황애시덕, 황창하, 황효(〈삼일신보〉, 1928, 3, 2, 創刊趣旨書, 고딕체: 동지회 소속, 밑줄: 홍사단 소속).

그럼에도 위의 발기인 명단을 보면 동지회계 인물이 홍사단계 인물보다 훨씬 많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창간 당시 진용을 보면 동지회계가 신문 발행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는 것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삼일신보〉의 진용은 사장 허정, 재무 홍득수, 서기 윤주관, 영업부장 안택주, 고문 이승만·서재필, 편집부 김도연·김양수·리동제·윤치영 등 25명으로 구성되었다(〈동아일보〉, 1928, 7, 28, 2면). 이 명단을 보면 운영은 주로 교포가 맡고 편집은 유학생이 전적으로 담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³⁾

이런 상황이 되자 비판이 쏟아져 나왔는데 동지회계였던 김현구는 1928년 3월 15일에 이승만에게 보낸 편지에서 “〈삼일신보〉의 취지서가 출송된 이후로 일면에서는 홍사단계 인사들이 자구농설(資口弄舌)하여 차(此)를 비난하되 동지회 기관지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불편부당과 대동단결을 자칭한다”고 비판했다고 보고했다(유영익 등, 2009a, 240쪽). 단결과 단합을 위해 〈삼일신보〉를 발행한다고 했지만 발기인에 동지회계가 훨씬 많이 참여했고 경영진과 편집진은 아예 동지회계가 완전히 주도하게 된 것에 대해 홍사단은 반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삼일신보〉는 ‘창간취지서’에서 “대한민국 독립의 완성을 위한 한민족의 자각을 촉성”하기 위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대동단결의 기세를 진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삼일신보〉, 1928, 3, 2, 創刊趣旨書). 또한 창간 이후에도 ‘본보의 주의주장’이라고 하며 “우리 한민족의 자주독립과 노농대중의 경제적 해방과 세계 열 민족과의 공존공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전 민족의 혁명적 세력을 총집중하여 우리 전 민중의 사회생활을 배양 조직하여 세계 각 민족의 자결에 의한 연맹의 촉성을 기함”이라고 밝혔다(〈삼일신보〉, 1929, 1, 4, 3면). 비록 이승만을 지지하는 동지회 소속 인물이 다수 참여하기는 했지만 〈삼일신보〉는 표면적으로는 한인의 대동단결을 추구하고 노동대중을 위하는 진

13) 창간준비를 하던 1928년 2월에 “뉴욕 조선인 〈삼일신보〉 발간, 유학생이 중심으로, 주필은 김양수 씨”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조선일보〉, 1928, 2, 28, 석간 2면).

보적 언론이 되겠다고 자신들의 방향을 밝혔던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이승만은 창간한 이후에도 <삼일신보>에 대해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았다. 1928년 7월 4일에 이승만에게 보낸 편지에서 허정은 “될 수 있으면 선생께서 좀 적극적으로 본사를 응원하시는 태도를 보여주시면 다른 동지들 결속에 큰 힘이 되겠사오니 십분 양찰(諒察)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자도 많이 얻어주셔야만 하겠습니까”라고 지원을 요청했다(유영익 등, 2009b, 369쪽). 이승만이 별 다른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삼일신보>가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삼일신보>에는 전반적으로 이승만이 활동하던 구미위원회, 이승만계 단체인 동지회에 관한 기사가 많이 실렸다. 1929년 1월 4일자 1면에 ‘구미위원부 유지회’, ‘동지회 뉴욕지회 일주년 기념식’, 2면에 ‘동지회 지회를 디트로이트에 조직코자-성탄절에 발기인 총회’, ‘시카고 동지회 망년회 대성황’ 등을 실었다. 1929년 5월 24일자 2면에 ‘시카고 각단체 연합회 장덕수씨 환영회’, ‘디트로이트 유지원들이 구(미위원) 부를 위하여 대활동’, ‘구미위원부 기본금’, 3면에 임시정부의 이승만 탄핵을 비판하는 기사인 ‘임시정부에 대한 실지의 후원방침’ 등을 게재했다. <삼일신보>는 홍사단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여 ‘왜 그리 홍사단 타령이 많은지 이제나 그만두자 보자, 저제나 그만두나 보자 하여도 계속’ 실었다는 지적까지 들었다(<신한민보>, 1928, 11, 29, 4면). ‘박용만 선생을 추도’(<삼일신보>, 1929, 1, 4, 4면), ‘안창호 선생의 주선으로 애국금 보낸 비율빈 동포들’(<삼일신보>, 1929, 5, 24, 1면) 등의 기사가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승만 또는 동지회 편향을 보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삼일신보>는 한국이나 해외의 독립운동에 관해 보도했고¹⁴⁾ 뉴욕 등에 거주하는 미주한인의 각종 행사를 알리기도 했다. <삼일신보>는 창간목적이 ‘대한민국 독립의 완성’이었던 만큼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모국이나 미국에서의 독립운동에 관한 소식을 많이 실었지만 부분적으로는 미국교포의 생활에 관한 내용을 싣기도 했다. 뉴욕시의 한인모임을 소개했고(<삼일신보>, 1929, 1, 4, 2면) ‘숫자로 본 뉴욕시’같이 뉴욕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으며(<삼일신보>, 1929, 5, 24, 1면) 1930년의 3·1운동 기념행사를 뉴욕한인교회에서 개최한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이해창, 1971, 187쪽).

<삼일신보>는 허정과 윤홍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 각지에서 자금을 모집하면서

14) 1930년 2월 28일자 1면 표제에는 “최후의 일인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자존의 정권을 회복하자”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그 하단에는 국내 각지에서 벌어진 독립운동 소식을 전했다(이해창, 1971, 186-187쪽).

창간될 수 있었다(허정, 1979, 70쪽). <신한민보>는 <삼일신보>가 창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금제’(股金制: 일종의 주식회사)로 자본을 모아 한 명당 100불씩 30명으로부터 3천 불을 모은 것으로 창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보도했다(<신한민보>, 1928, 2, 9, 1면). 실제로 창간자금을 얼마나 마련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창간 당시에는 어느 정도의 자금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¹⁵⁾

<삼일신보>의 발행부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 500부 내지 천 부 정도였다는 기록이 있다(<京本高秘> 제 638호, 1930, 2, 20). <삼일신보>가 이렇게 많은 부수를 발행했던 것은 미국 내 다른 지역이나 한국에까지 배포했기 때문이었다.¹⁶⁾ <삼일신보>에는 신문구독을 위해서는 1년 치 선금 6월을 보내라는 ‘영업부광고’가 실렸다(<삼일신보>, 1929, 1, 4, 4면). 그러나 당시 뉴욕에 거주했던 김형민이 <삼일신보>를 “조선인이 사는 집에는 그냥 배달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는데(<金川炯敏訪問調書> 4회, 1942, 2, 22), 이를 통해 실제로는 <삼일신보>가 무료로 배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상 구독료 수입을 얻을 수 없었던 <삼일신보>는 2면과 4면 하단에 음식점이나 직업소개소 등의 광고를 게재했다. <삼일신보>는 어려운 가운데도 모국에서 수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사원일동 명의로 100원을 보내기도 했다(<동아일보>, 1929, 7, 9, 3면). <삼일신보>는 재정난을 겪다 2년 만에 폐간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 김도연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교포들의 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엄정중립의 논진을 피었던 이 신문은 경영면과 편집면의 구성인물들이 동지회에 가까운 인사가 많았고 특히 허정씨는 이승만 박사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던 인사였기 때문에 흥사단에 가담한 교포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게 되었으며 따라서 호감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엄정중립을 표방한 이 신문에 대하여 이승만 박사 자신도 자기를 적극 지지하지 않는다 하여 별로 달갑게 생각지 않아 결국 신문은 교포들로부터 고립되고 말았다. 따라서 이 신문은 약 2년 동안 꾸준히 속간을 보아 교포들의 지도계몽에 성과도 적지 않았으나 결국은 교포들로부터 고립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재정난에 봉착하고 학생들도 학업을 마치고 해

15) 김원용은 <삼일신보>가 “찬성자를 모집하여 1인당 100달러씩 얻어서 유지하려던 것이었으나 그 내용은 이때의 비밀결사이던 ‘대광’의 재정 3천 달러”로 창간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김원용, 1959, 272쪽). ‘대광’은 장덕수, 윤홍섭, 허정, 임용호, 안택주, 이철원, 최순주 등이 이승만의 구미위원회 유지와 독립운동의 장기대책을 수립하기 조직한 비밀결사였다(정병준, 2005, 333쪽). 이를 통해 <삼일신보>의 창간자금이 주로 이승만 지지 세력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 <삼일신보> 발기인이었던 한보용이 편지로 위장하여 경성의 남진우에게 <삼일신보>를 보냈다가 발각되어 압수당한 일이 있었던 것을 보면(<朝圖秘> 제 1847호, 1929, 6, 13), 은밀한 방법으로 한국 내에 <삼일신보>가 배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지게 되며 자연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도연, 1967, 115쪽)

김원용(1959)도 “이승만을 후원하여 편견을 주장한 까닭”에 “민중의 후원이 없”(272쪽)어져 폐간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동지회 소속으로 창간 주역이었던 허정(1979)은 처음에는 <삼일신보>가 한인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받았지만 자신과 장덕수가 뉴욕을 떠나면서 “재정난과 인력부족으로 문을 닫았다”(73쪽)고 주장했다. 전적으로 이승만과 동지회에 대한 지지논조 때문에 독자로부터 외면 받은 결과 <삼일신보>가 폐간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점이 상당히 영향을 준 것만은 사실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창간에 참여했던 주요인물이 귀국했던 것도 폐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2) 동지회 기관지를 표방한 <북미시보>

이승만계 신문으로 다시 뉴욕에서 발행된 신문은 바로 1943년 1월에¹⁷⁾ 창간된 <북미시보>이다. <삼일신보>는 동지회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내걸고 발행한 것은 아니었던 반면, <북미시보>는 북미동지회총지부라는 이름으로 공식 발행한 신문이었다. 동지회는 1930년대 이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미국의 2차 대전 참전 이후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며 1942년 6월에 북미동지회대표회를 개최하고 ‘북미동지회총지부’라는 이름의 통합체를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북미동지회총지부는 총지부장 남궁엽, 서기 김세선, 회계 최용진, 편집부원 안어진을 선임하고 총지부의 위치는 임시로 뉴욕에 두기로 했다(홍선표, 2009, 444-445쪽). <북미시보>의 창간 당시 주필은 김학산이었고, 편집인은 안어진이었다.

현재 뉴욕에서 발행되었던 시절의 <북미시보>는 단 한 호가 남아 있는데 이 신문의 1, 2, 3, 8면이 모두 ‘이승만에 대한 절대 지지’를 표방한 로스앤젤레스 민중대회와 관련된 기사로 채워졌다(홍선표, 2009, 448쪽). 동지회와 관련된 이런 기사 외에 일체의 탄압에 관한 사실이나 국제정세를 다룬 기사도 극히 일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동지회에 관한 기사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홍선표, 1998). 비록 한 부밖에 남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북미시보>는 오로지 이승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행된 신문이었다

17) 최기영은 <북미시보>가 1943년 4월 11일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창간되었다고 주장했다(최기영, 1998, 125-126쪽). 이 논문의 작성시기에는 아직 영인본이 나와 있지 않아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왔을 것이다.

고 할 수 있다.

북미동지회총지부가 대한인동지회북미총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뉴욕에서 발행되던 <북미시보>는 1943년 9월에 로스앤젤레스로 발행지를 옮겼다. 안창호계의 활동의 중심지인 미국 서부지역에서 이승만계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던 것이다. <북미시보>는 광복 이후에도 계속 발행되다가 1965년에 폐간되었다.

5. 산업발전을 위해 발행된 잡지 <산업>

일제 강점기에 뉴욕에서 회보나 신문이 아닌 잡지로 유일하게 발행되었던 것은 바로 <산업>이었다. <산업>은 당시 컬럼비아대학에 다니던 김도연이 중심이 되어 1927년 10월에 뉴욕에서 조직한 ‘유미(留美) 한인산업협회’에서 발행한 잡지였다. 이 협회의 구성 준비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나기호, 최순주, 장덕수, 김중철, 임파, 현철, 립아영, 김도연, 오기은, 김성실, 최정집, 윤홍섭, 안정수, 광림대, 장리욱, 최정욱, 이용직, 흥득수, 이동제, 이철원, 허정, 김양수, 윤치영, 이대위, 김여택, 이상용, 최인관, 박인덕, 송기주, 김현구. (<신한민보>, 1927, 9, 15, 4면, 고딕체: 동지회 소속, 밑줄: 흥사단 소속)

위의 명단을 보면 대체로 이승만을 지지하는 동지회 계열 인물이 다수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미한인산업협회는 결성 당시부터 잡지를 간행할 계획이 있었다(<신한민보>, 1927, 9, 15, 4면). 유미한인산업협회는 1928년 5월에 공업·상업·농업 등의 산업에 관한 ‘현상논문응모’ 공고를 내기도 했다(<신한민보>, 1928, 5, 3, 3면). 이런 시도는 아마 잡지 창간을 위한 준비였을 것이다.

유미한인산업협회는 조선산업협회와 공동으로 1930년 5월에 <산업>의 창간호를 발행했다. 국내에서 발행하기 위해서는 조선산업협회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유미한인산업협회는 <산업> 창간호에서 “내외지 산업사정을 조사하여, 조사·참고 재료공급과 회원친목을 도모코자” 협회를 결성했었다고 밝혔다(<산업> 제1호, 1쪽). 유미한인산업협회 결성과 <산업> 발간을 주도했던 김도연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나는 거류민들을 중심으로 한 실업계를 프로모션함으로써 교포들이 산업계에 진출하는 길을 열어주고 교포 출신의 사업가들에게 그 활동을 뒷받침 하려는 뜻에서 그 방

면에 있던 인사들을 총망라해서 산업협회를 발족시켰다. 학생으로는 나와 최순주, 한상익씨 등이 가담하였고, 실업계에서는 홍(득수)씨, 이(진일)씨 등이 가담하여 교포 출신의 실업가를 위하여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협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우리 학생들이 주동이 된 것은 당시 뉴욕에 와 있던 일본인과 중국인들은 그들끼리의 단체를 형성하여 미국의 실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했던 것이며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우리는 그들에 못지않게 실업계에서 활동하는 뒷받침을 하고자 출발한 것이다. 우리 학생들은 이 협회가 발족한 후 <산업>이라고 하는 월간 잡지를 발행한 적도 있었는데 이것을 본국에서 조판, 인쇄하여 가져오는 등으로 많은 애를 썼던 것이다. (김도연, 1967, 108쪽)

김도연의 주장과 달리 <산업>은 월간 잡지는 아니었다. 제 1호 ‘편집여담’에서 <산업>은 ‘산업에 관한 논문집’이라고 하며 ‘정기간행물’은 아니라고 밝혔다. <산업> 1호는 한국의 경제발전과 교포들의 미국정착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었는데 크게 ‘논설’, ‘유미(留美) 실업가 방문기’, ‘부록’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으로 ‘논설’의 비중이 컸다는 점에서 이 잡지가 일종의 논문집의 성격을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논설’에서는 국제적 시각에서 한국의 경제발전의 방향을 다룬 논문 10편을 게재했는데 서재필과 브루너(Brunner)의 논문은 부록에 영문으로 다시 실렸다. 국제청년회농촌경제부장을 맡고 있던 브루너는¹⁸⁾ “1928년에 조선경제 형편을 조사하여 조선농촌경제대책까지 발간하였으며 특히 본회를 위하여 많은 찬조를 하는” 인물이었다(<산업>, 제 1호, 11쪽). 뉴욕의 컬럼비아대학에서 공부했던 김도연·서민호·나기호, 미국 내 다른 지역의 대학에서 공부한 바 있는 이훈구·김훈·오정수 등 유학생의 논문이 실렸다. 뉴욕에 거주하는 교포였던 안정수가 쓴 “공제산업회사 설립을 제창함”은 재미한인의 경제활동의 발전방안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었다.

‘유미 실업가 방문기’에서는 뉴욕을 중심으로 교포가 미국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뉴욕에서 자영업을 하는 한인 중에서 안윤희(꽃가게), 홍득수(동양식료품회사), 이진일(동양물품상회), 안정수(제향회사), 임초(동양물품상회), 이원익(인삼상회) 등을 다룬 기사는 이민자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담았다. 또한 디트로이트에 있던 “재미동포실업계의 대표기관인 정안주식회사”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기도 했다.¹⁹⁾ 제 1호 ‘편집여담’에서 “될 수만 있으면 현재 북미주합중국에 거주하는

18) 컬럼비아대학 농촌사회학과 교수였던 브루너는 <산업> 2호 발간을 주도했던 한승인에게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오진석, 2011, 78-79쪽). 그는 1927년에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농촌조사를 실시한 바도 있었다.

우리 동포의 실업상태를 상세히 조사하여 게재”하러 한다고 밝힌 데서도 이 잡지의 지향을 잘 알 수 있다. ‘부록’에는 서재필과 브루너의 영어논문 2편 외에 뉴욕대학을 나온 최순주의 글이 실렸다. 최순주의 글은 <동아일보> 1927년 8월 7일부터 9월 2일까지 20회에 걸쳐 연재되었던 글을 재수록한 것이었다.

이렇게 다양한 글이 실렸기 때문에 <산업>은 “풍부한 내용과 과학적 작품이 많이 게재 되었으므로 누구나 밥을 한 때 껴할지언정 읽어보지 않을 수 없는 잡지”라는 평가를 듣기도 했다(<신한민보>, 1930, 7, 17, 1면). 그러나 원고를 한국어로 보내 한국에서 발행하여 다시 미국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일제의 원고검열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산업>은 일제에 대한 비판이나 독립운동에 관한 내용은 아예 다룰 수 없었다. 필자 중에는 동지회계 인물이 약간 더 많기는 했지만 나기호나 임초처럼 홍사단계 인물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뤘다.

<산업> 창간호 발행 후 유미한인산업협회 활동은 한동안 침체되었다. 1932년 초에 2호 원고모집 광고를 내보냈지만 잡지발행은 별로 진전이 없었다.²⁰⁾ 1932년 3월에 임원진이 교체되면서 활동을 재개했는데 새로운 임원진에 안창호를 지지하는 홍사단 계열의 인물이 대거 참여했다. 홍사단의 핵심인물인 한승인이 이사장을 맡았고 신임이사 중에서도 황창하, 김마리아, 김경 등 홍사단 인물이 포함되었다(<신한민보>, 1932, 3, 3, 1면). 김도연이 귀국을 결심한 뒤 활동을 중단하면서 1931년 8월에 컬럼비아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던 한승인이 <산업> 발행을 이어받았고 그가 자신과 가까운 홍사단계 인물들을 끌어들이었던 것이다.

<산업> 2호 발간 직전에 유미한인산업협회는 “원고는 방금 총독부에 제출하여 검열 중”이라고 하며, 그 회원은 “조선 안에 21인, 미주에 41인, 하와이에 2인”이 있다고 밝혔다(<동아일보>, 1932, 12, 21, 3면). 1932년 12월에 <산업> 2호가 발행되었는데 1호와 마찬가지로 조선산업협회와 북미 뉴욕시 조선인산업협회가 공동으로 발행한 것으로

19) 유기원이 쓴 이 글은 북미한인유학생총회에서 발행하던 잡지인 <우라키> 4호(1930)에 “북미주동포실업계 패왕 정안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실렸던 것을 재수록한 것이었다. 정안주식회사를 설립한 안재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형주(2013)의 책에 실렸다.

20) 1932년 1월 7일자에 실린 <산업> 2호 원고모집 광고에는 김도연 명의의 주소로 원고를 보내라고 나와 있었다(<신한민보>, 1932, 1, 7, 4면). 1932년 1월 이후 김도연이 활동을 중단하면서 1932년 3월에 한승인이 유미한인산업협회 이사장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도연은 1932년 8월 28일에 귀국했다(<동아일보>, 1928, 8, 30, 7면). 한승인은 석사학위 취득 후 구직활동을 하다가 단념하고 1932년 가을경부터 행상을 했다고 한다(한승인, 1980, 146-155쪽). 그는 1933년 7월 8일에 귀국했다(<동아일보>, 1933, 7, 13, 3면).

나와 있었다.

재미한인 사업가를 취재해 실었던 1호와는 달리 2호는 논문을 주로 게재하여 학술잡지 같은 성격으로 변화되었다. ‘논설’란에서는 김도연·한승인·고병남·최정준·최순주 등 유학생 출신 5명의 논문이 실렸다. ‘논설’란 외에 ‘세계경제공황의 현상’, ‘미국산업계 소식란’, 영문으로 된 산업에 관한 ‘신간서적과 잡지 소개’ 등을 실었을 뿐이었고 재미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전혀 없었다. 2호 편집후기에서 “금번 호 내용이 비교적 1호 내용보다 충실하게 되었”다고 자평했지만 재미한인 사업가에 관해 직접 취재한 기사를 전혀 신지 못함으로써 잡지의 성격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관한 논문을 실는 학술잡지 같은 성격으로 변화되었다. 흥사단계인 한승인이 2호 발행을 주도했지만 1호 때와 마찬가지로 필자는 흥사단계인 한승인과 동지회계인 김도연, 최순주 등이 골고루 참여했다. 다만 2호에는 1호 때와는 달리 교포의 참여가 없었다.

〈산업〉은 광고를 실었는데 광고 한 호당 50전에 판매했고 유미한인산업협회 회원은 1년에 2달러씩 회비를 내기로 했었다(〈신한민보〉, 1932, 12, 1, 1면). 그러나 광고를 줄 만한 곳이 별로 없었고 회원도 회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산업〉이 광고나 회비로 운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럼에도 2호 발간비를 다 지불하고도 아직 12불이 남았던 것은(〈신한민보〉, 1932, 12, 1, 1면) 2호 후기에서 밝힌 대로 김성수가 50달러를 지원해주었던 덕택이었다. 그러나 2호 발행을 끝으로 더 이상 유미한인산업협회도 활동을 하지 않았고 잡지발행도 중단되었다. 2호 발행을 주도했던 한승인이 1933년 7월에 귀국한 후 그 역할을 대신할 인물을 찾기 어려웠고 잡지의 성격상 독자를 확대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6. 요약 및 결론

일제 강점기 뉴욕 한인언론의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모국이 식민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따라서 뉴욕의 한인언론은 주로 한국의 독립을 미국의 여론에 호소하는 보도를 하거나 미국에 거주하는 민족운동 세력의 단결을 촉구하는 기사를 게재하는 등의 활동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했다. 또한 뉴욕의 한인언론은 신문발행 조직이나 지역의 문제를 다루어서 부분적으로는 교포나 유학생이 미국에서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시도도 하였다. 활동의 방향이나 매체의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일제 강점기 뉴욕의 한인언론은 주로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고 부분적으로는 유학생이나 교포의 미

국생활에 도움을 주었다.

다만 발행주체가 누구였느냐에 따라 어떤 내용에 더 중점을 두었는가가 달라졌다. 유학생 중심의 영문매체는 흥사단 계열 인물이 주도했고 주로 학생단체 소개나 유학생생활 안내 등을 통해 유학생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으며 후기로 가서는 계파를 넘어 독립운동을 촉구하거나 미국인에게 독립의 필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 동지회계의 국문신문은 동지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활동에 더 치중하는 논조를 보였고 부분적으로는 지역에 거주하는 교포에 관한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즉, 유학생 발행 영문매체는 미국인에게 독립운동을 호소하는 역할을 주로 했고 동지회 발행 국문신문은 독립운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활동을 주로 했으며 두 매체 모두 아주 부분적으로만 유학생과 교포의 미국생활을 돕는 역할을 했다.

유학생 발행 영문매체나 동지회 발행 국문신문과는 달리 <산업> 잡지에는 동지회와 흥사단 소속 유학생과 교포가 모두 참여했다. <산업>은 앞의 두 유형의 매체와는 달리 독립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신지 않았고 주로 미국사회에서의 경제활동의 가능성이나 한국의 산업발전 문제를 다루었다. 원고를 한국으로 보내 발행하는 체제라서 총독부의 검열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일제에 대해 비판적 논조를 보일 수 없었다. ‘민족운동에 대한 기여’와 ‘미국사회에 대한 적응’이라는 두 가지 매체의 역할 중 유학생 발행 영문매체나 동지회계 국문신문이 전자의 역할에 치중했다면 <산업>은 후자의 역할에 더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 뉴욕의 한인언론은 조국의 현실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민족운동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독립의 필요성을 외국인에게 알리는 역할을 주로 했다는 점에서 ‘민족정체성의 보존’이라는 차원의 활동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산업>의 경우에도 교포의 미국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더 크기는 했지만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도도 어느 정도 있었다는 점에서 다소 비슷한 면을 가졌다. 즉, 일제 강점기 뉴욕의 한인언론은 전체적으로 민족정체성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며 모국과의 연계 속에 활동을 하려고 했다.

뉴욕의 한인언론에 참여했던 다수의 유학생과 교포가 동지회나 흥사단 같은 단체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한인언론이 독립운동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당시 뉴욕 한인의 대부분이 미국에 정착할 의사가 강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한인언론이 ‘미국사회에의 동화’를 위한 역할은 별로 하지 못했다. 뉴욕 한인이 식민지였던 조국의 독립에 열망을 가졌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뉴욕거주 한인의 상당수가 곧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이었다는 점이 뉴욕 한인언론의 성격을 결정지었다. 실제로 뉴욕의 한인언론에 관여

했던 인물 대부분은 귀국 후 정치·경제·교육·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 뉴욕의 한인언론은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뉴욕 한인언론의 특성과 역할은 하와이나 서부지역 등 미국 내 다른 지역의 한인언론과는 다소 달랐다. 하와이에서는 주로 이승만계 신문이 발행되었고 서부지역에서는 주로 안창호계 신문이 발행되었던 것과는 달리 뉴욕에서는 두 세력이 모두 신문발행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보다 더 큰 차이는 하와이나 서부지역과는 달리 <산업> 같이 교포의 경제활동을 다루어 미국의 정착을 돕고자 하는 잡지가 발행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뉴욕에 경제학을 전공한 유학생이 많았고 일찍부터 상업활동을 했던 교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제 강점기 미주 한인언론에 대한 연구는 독립운동을 위한 역할에만 주목했던 경향에서 벗어나서 미국사회에의 적응이라는 에스닉 미디어로서의 또 다른 역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일제 강점기 미국의 하와이나 서부지역 한인언론의 특성과 역할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해방 이후 미국 한인언론의 역할의 변화과정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한인언론의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런 연구는 미주 한인언론은 물론 미주 한인사회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2007).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국사편찬위원회 (2007). <金川炯敏訊問調書 4회>(1942, 2, 22).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68권.
- 김도연 (1967). <나의 인생백서: 상산 회고록>. 서울: 강우출판사.
- 김복수 (1994). 해외 교포신문의 실태와 사회의식에 관한 연구: <독립>(Korean Independent)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32권, 63-103.
- 김원용 (1959). <재미한인 50년사>. 서울: 해안.
- 김점숙 (2003). 미주 한인사 자료의 현황과 수집방안.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론 39: 미주지역 한인이민사> (255-299쪽).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 김희곤 (1998). 북미유학생잡지 <우라키> 연구. <경북사학>, 21집, 1097-1119.
- 뉴욕한인교회역사편찬위원회 (편) (1992). <강변에 앉아 울었노라: 뉴욕한인교회70년사>. 서울: 깊은샘.
- 삼일신보 (1928, 3, 2). 創刊趣旨書. 移入輸入不穩刊行物現況(국사편찬위원회 소장).

-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1995). <칠십년사>. 서울: 고려인쇄공사.
- 안형주 (2013). <1902년, 조선인 하와이 이민선을 타다: 안재창의 가족 생애사로 본 아메리카 디아스포라>. 서울: 푸른역사.
- 오대륙 (2011). 일제강점기 상산 김도연의 현실인식과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8집, 159-195.
- 오진석 (2011). 일제하·미군정기 한승인의 정치활동과 경제인식. <한국경제학보>, 8권 1호, 65-112.
- 유영익·송병기·이명래·오영섭 (2009a). <이승만 동문 서한집> 중.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 유영익·송병기·이명래·오영섭 (2009b). <이승만 동문 서한집> 하.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 윤인진 (2003). 코리아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한국사회학>, 37집 4호, 101-142.
- 이해창 (1971). <한국신문사연구>. 서울: 성문각.
- 장규식 (2006). 일제하 미국유학생의 서구 근대체험과 미국문명 인식. <한국사연구>, 133집, 141-173.
- 장규식 (2008). 1900~1920년대 북미 한인유학생사회와 도산 안창호. <한국근현대사연구>, 46집, 105-146.
- 장원호 (1991). 미주 한인과 한인신문. <미국 속의 한국인>(279-296쪽). 서울: 유림문화사.
- 정병준 (2005). <우남 이승만 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 조종무 (1987). <아메리카 대륙의 한인 풍운아들> 상. 서울: 조선일보사.
- 차배근 (1980). 포규한교(布喹韓僑) 신문사 논고. <한국신문학보>, 13호, 55-82.
- 최기영 (1989). 구한말 <공립신보>·<신한민보>에 관한 일고찰. <동아연구>, 17집, 575-607.
- 최기영 (1998). 한말·일제시기 미주의 한인언론. <한국근현대사연구>, 8집, 98-132.
- 한 선 (2006). 재미 한인언론 네트워크 현황과 특성.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705-738.
- 한승인 (1980). <미국 유학시절의 회고>. 한국: 방인도.
- 허 정 (1979). <내일을 위한 증언>. 서울: 샘터사.
- 홍선표 (1998). <북미시보>: 해제. <북미시보-영인본>(1-16쪽). 서울: 국가보훈처.
- 홍선표 (2000). *The Korean Student Bulletin*: 해제. *The Korean Student Bulletin*: 영인본 (1-11쪽). 서울: 국가보훈처.
- 홍선표 (2009). 해방 이전 대한인동지회의 조직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3집, 417-463.
- 홍선표 (2012). <김호: 재미한인 독립운동의 표상>. 서울: 역사공간.
- 京本高秘 (1930, 2, 20). 제 638호. 在外要視察人歸來ニ關スル件(국사편찬위원회 소장).
- 朝圖秘 (1929, 6, 13). 제 1847호. 密送刊行物取締ノ關スル件(국사편찬위원회 소장).
- Deuez, M. (2006). Ethnic media, community media, and participatory culture. *Journalism*, 7(3), 262-280.
- Lai, H. M. (1987). The Chinese-American press. In S. M. Miller (Ed), *The ethnic press in the*

- United States* (pp. 27-43). New York, NY: Greenwood Press.
- Matsaganis, M. D., Katz, V. S. & Ball-Rokeach, S. J. (2010). *Understanding ethnic media: Producers, consumers, and societies*. Los Angeles, CA: Sage Publications.
- Park, R. E. (1922). *The immigrant press and its control*. New York, NY: Harper & Brothers Publishers.
- Rhodes, L. D. (2010). *The ethnic press: Shaping the American dream*. New York, NY: Peter Lang.
- Riggins, S. H. (Ed.) (1992). The promise and limits of ethnic minority media. In *Ethnic minority media* (pp. 276-297).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Viswanath, K. & Arona, P. (2000). Ethnic media in the United States. *Mass Communication & Society*, 3(1), 39-56.

최초 투고일 2016년 6월 7일

게재 확정일 2016년 7월 14일

논문 수정일 2016년 7월 22일

The Characteristics and Role of Korean American Media in New York City during Japanese Colonial Era

Yonggyu Park

Professor, Sangji University

During Japanese colonial era, five newspapers and magazines were issued by Korean Americans in New York City. These media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by their principal agents or characteristics. The first category includes *The Korean Student Bulletin* and *The Free Korea*, which were written in English by Korean students studying in America, and whose contents were mostly helpful to students and appealing Korean independence. The second category includes *Samil Shinbo* and *Bukmi Shibo*, which were issued by 'Dongji-hoi' led by Seungman Lee, whose contents consisted of sponsoring his activities. The third one was *Industry*, which was issued by Korean students and Korean Americans together. Its main purpose was to contribute to Korean Americans' settlement in America and to development of Korean industry. Of the two roles of the media, 'contribution to the national movement' and 'adjustment to American society', English media issued by Korean students and Korean newspaper issued by Dongji-hoi focused on the former role, while *Industry* focused more on the latter role. Korean media of New York City during Japanese colonial era overall tried to maintain the national identity, worked in the connection with the mother country, and showed strong identity of diaspora.

Keywords: *The Korean Student Bulletin*, *The Free Korea*, *Samil Shinbo*, *Bukmi Shibo*,
The San-up